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보험업계, 중국 등 신흥보험시장 진출 본격화

□ 대형 생명보험회사인 메이지야스다생명은 최근 중국 최대 가전업체인 하이얼그룹의 생명보험 자회사를 통해 조만간 보험상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함.

- 메이지야스다생명은 중국 최대 가전업체인 하이얼그룹 산하 하이얼생명*의 지분 30%(약 70억 엔 규모)를 상반기까지 매입하기로 하고, 조만간 중국 내 27,000여 개의 상점을 통해 부유층 대상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할 계획을 밝힘.

* 하이얼생명(海爾人壽保險有限公司)은 2002년 11월 상하이에서 설립되어 중국 내 4성 1개 도시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 생명보험회사로 시장점유율은 전체 49개사 중 38위(2009년 기준)임.

- 뉴욕생명과 합작해 하이얼생명을 설립한 하이얼그룹이 최근 경영상의 문제로 뉴욕생명과 합작을 철회하자 메이지야스다생명은 향후 출자비율을 외국인 상한선인 50%까지 확대하는 한편, 3명의 본사임원을 파견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하이얼그룹의 인지도 및 판매망을 통해 중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임.

□ 최근 손해보험재팬이 업계 최초로 현지은행과 제휴해 중국 방카슈랑스시장에 진출한 바 있으며, 메이지야스다생명과 도교해상홀딩스도 인도, 인도네시아, 동유럽 주요국에 지점 및 합작사를 설립하는 등 주요 회사들의 신흥 보험시장 진출이 잇따르고 있음.

- 메이지야스다생명 외에도 손해보험재팬은 연평균 20% 이상 고성장하는 중국보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작년 말 업계 최초로 중국 현지은행(상하이은행)과 제휴해 방카슈랑스 전용 화재보험 상품 등을 판매하고, 중국의 삼대 경제거점 중 하나인 장쑤성에 네 번째 지점을 설립해 현재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.
- 한편, 메이지야스다생명이 이미 진출한 인도네시아 외에도 폴란드와 터키의 현지보험회사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, 도교해상홀딩스도 인도에 합작 생명보험사(에델바이스 도교라이프 인슈어런스)를 설립해 최근 영업인가를 받는 등 보험업계의 신흥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음.

(요미우리신문, 마이니치신문 1/10)